

새단장 '대인야시장' 10일 문 엽니다

매주 토요일 '별장 프로젝트'
다양한 전시·공연에 먹거리도
다문화가족·어린이 참여 확대
지역 작가 공간·판매망 조성



대인시장 마스코트 부엉이

다양한 공연과 전시, 먹을거리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광주 대인예술야시장이 오는 10일 올해 첫 개장 행사를 하고 다시 불을 밝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전라도지오그래픽이 주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대인야시장 별장프로젝트'가 새롭게 문을 연다.

올해 별장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밤 11시 대인예술야시장에서 열리며 매달 새로운 주제로 관람객과 만난다.

프로그램은 '예술지원 프로그램'과 '시장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술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대인문화창작소 지음', '다문화공간 드리머스', '한평갤러리', '아트컬렉션 샵수작', 'Let美 in 공작소 Ver. 2', '대인예술학교', '웰컴 센터·시장한 바퀴', '아카이브' 등이다.

예술작가들에게 창작·전시 공간을 지원하고, 기획전, 특별초대전 등을 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예술시장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예술가의 창작품 판매로 대인예술시장 활성화를 견인하는 플랫폼 조성도 눈에 띈다.

또 문화예술을 매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벽화·설치미술 등 공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술배움터와 마을형 예술학교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야시장 별장', '상인 아카데미 상상에감', '지역문화네트워크 포럼', '시민 인문강좌 힐싱수설', '어린이·외국인 존 운영' 등이 마련된다.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하고 마케팅 탐방단을 운영하며, 외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존을 지정하고 문화예술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



지난해 열린 대인예술야시장에서 시민셀러들이 직접 제작한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인예술야시장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 예술품을 만들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

원한다.

또 전국 문화기획자 연대와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문화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고전·문화예술·시사·교양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인문강좌를 진행하며 전시·공연 위주의 예술시장에서 인문예술시장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코너도 있다. 다문화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 더욱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다문화공간 드리머스'에서는 다국적 밴드 '드리머스'가 공연을 펼치며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이 행사에 참여해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접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인예술시장을 다문화 특화거리로 조성할 방침이다.

'키즈존'도 처음 선보인다. 키즈존에서 펼쳐지는 첫 개장행사에서는 극단 '도깨비'의 인형극 '오해해 서 미안해'와 봄꽃 퍼즐만들기, 재활용 컵을 활용한 다육화분 제작, 꽃 모양 포스트잇 붙이기 등 어린이를 위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열린다.

이달의 주제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 항상 볼과 같은 따뜻한 정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담은 '여물위춘(與物爲春)'이다.

10일 개장행사에서는 극단 '소리노리'의 길놀이 공연과 강명진의 전자 바이올린 연주, 토이 피아노 앙상블 공연, 인형극 '전자 바이올린의 신세계' 등이 열린다.

또 72개 팀의 시민 셀러가 참여해 직접 제작한 수공예품도 판매한다. 시장상인들은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 관람객을 맞는다. 문의 062-613-3430.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약사 시인·화가의 담백한 조화

이시훈 시인·류효선 화가 '꽃에 대한 시선' 출간



"본질은 늘 단순하고 투명하다. 그것을 찾아내는 시선도 그렇게 단정하고 순전해야 한다. 내 삶에 대해서 자주 돌아보며 털어 내는 일, 깊이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에 애정을 품는 일을 숙제처럼 가지고 살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가."

시인이며 약사인 이시훈 시인이 시산책서 정시선으로 시집 '꽃에 대한 시선'(사진)을 펴냈다.

작품집에는 '꽃 피는 언덕', '나무에게', '마른 꽃', '별을 헤다' 등 모두 40여 편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각각의 시에는 이미지에 맞는 그림들이 담겨 있어 작품집은 한 권의 '시회화' 시집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림은 약사이며 화가인 류효선 씨의 작품으로 따스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진다.

두 사람은 약사라는 동일한 직업을 가진 오랜 친구 사이로, 각각 시인과 화가로 활동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시인은 "사물과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시간들을 가만히 '바라본다'는 것은 시를 쓰는 일과 그림을 그리는 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두 작업이 만나 어우러지는 조화가 단순하면서도 담백한 여운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발에 밟히는 풀 속에 숨은/ 작은 잎새들이/ 바위를 물들인 푸른 이끼들이/ 마음 어디엔가 자리 잡은 얼룩들이/ 꽃이라고 나대도 어쩔 수 없다./ 뿌리가 있고 빛깔이 있는 그대들을/ 나도 꽃이라 이르겠다./ 꺾지 않아도/ 좋은 향기가 나지 않아도/ 그 뿌리가 고통을 딛고/ 세상을 향해 피어났기에."

표제시 '꽃에 대한 시선'은 '바라봄의 미학'이라 해도 될 만큼 사물을 오랫동안 주시해온 화자의 심상이 담겨 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을 향해 피어나는' 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아마도 그 꽃은 사람이라는 대상으로 치환이 가능할 것 같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빈 그릇' 채우는 시조의 맛

김옥중 작품집 '빈 그릇' 출간



담양 출신 김옥중 시조시인이 새 작품집 '빈 그릇'(미디어 민·사진)을 펴냈다.

시조의 맛은 간결함과 깊은 울림에 있다. 그러나 각각의 시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감동은 달라진다. 김옥중 시인의 작품은 음보와 시어가 제자리에 들어맞듯 조화를 이룬다. 평이한 시어와 결합한 리듬은 오래도록 여운을 준다.

"넘치는 그릇보다/ 빈그릇이 아름다워// 바람도 담아 보고/ 달빛도 담아 보고// 정정한/ 저 하늘까지도/ 담아 볼 수 있기에."('빈 그릇') 표제시조 '빈 그릇'은 비유와 미학을 말한다. 비워야 담을 수 있다는 역설을 말하는 것으로, 물질적인 부와 화려한 명성이 아니다. "바람도 담아 보고 달빛도 담아 보고"에서 보듯 빈그릇이 담아내는 것은 자연이다.

문복선 시조시인은 해설에서 "빈 그릇에 우리의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자유롭고 때 묻지 않은 영혼을 담아보려는 김옥중 시인의 격조 높은 삶의 철학에 독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으리니 기대를 품는다"고 평한다.

한편 김옥중 시조시인은 1979년 전남매일신문 신춘문예 시조로 문단에 나왔으며 무등시조문학상과 광주시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문인협회 시조분과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금강초롱꽃', '돌갈나무' 등을 펴냈다.

한편 김옥중 시조시인은 1979년 전남매일신문 신춘문예 시조로 문단에 나왔으며 무등시조문학상과 광주시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문인협회 시조분과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금강초롱꽃', '돌갈나무'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민요의 현대적 해석... 10일 전통문화관 공연

전속한 민요를 퓨전국악으로 재해석한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0일 오후 3시 토요상설공연으로 '창작국악그룹 그루'를 초청, '그루와 함께하는 힐링음악 공간' 무대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진도아리랑', '닐리리아', '강원도 아리랑', 한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 등 창작 국악 그루만의 색다른 흥겨움을 선사한다. 이어 창작 국악인 남지가 '추천가'를 공연하고, 장단

놀이의 즐거움을 관현악으로 풀어낸 '신밧노래', '정선아리랑'을 편곡한 창작 무대가 펼쳐진다.

끝으로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메들리로 남도풍류의 진수를 선사한다.

이날 공연은 문보라, 김장훈, 박정미, 신선민, 이화림, 오로지, 신혜인 씨가 출연한다. 오는 17일에는 '전통연희예술단 굴렁쇠'를 초청해 '전통무용과 풍물의 공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62-232-1595. /박성천기자 skypark@

천만홀릭 케빙순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

경리 이원석 신동엽 김기방 은지원

CHANNEL